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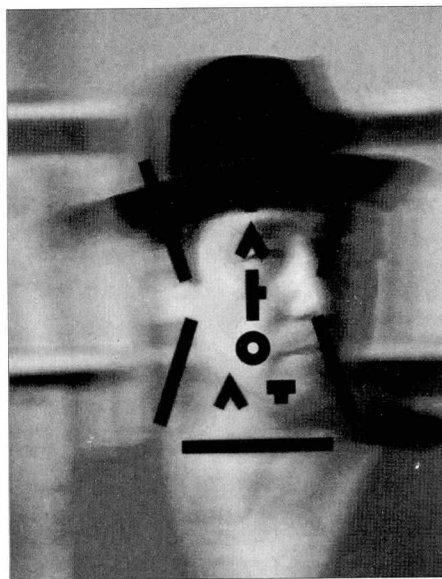
‘한글’ 사랑의 몸부림

<안상수. 한 · 글 · 상 · 상> 전시회

탈 네모꼴 서체인 안상수체로 더 유명한 타이포그래픽 디자이너 안상수(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씨 <안상수. 한 글 상 상> 전시회가 지난 5월 25일 시작해 7월21일 대 단원의 막을 내렸다. 개인과 세상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매개체는 글자이다. 시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글자’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안상수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중추’이다.

안상수 교수는 바로 우리 타이포그래피의 중추인 한글 서체 개발과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을 이끌어온 그래픽 디자이너다. 아래아한글에서 익히 접하고 있는 ‘안상수체’를 비롯해 ‘이상체’, ‘미르체’, ‘마노체’ 등 그가 개발한 서체들은 기존 한글의 네모꼴을 벗어난 서체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염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자의 다양성에 기여해 왔다. 또한 지난 25여년간 한글을 소재로 한 자유롭고 개성 있는 작업들을 통해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고, 의미 전달의 도구에서 벗어나 글자 자체로 나름의 의미를 갖는 독자적인 항목으로 독립시켜 자유로운 상상과 실험을 가능케 했다.

<안상수. 한 글 상 상>이라 이름 붙은 이번 전시는 한글



타이포그래피와 디자인 작업, 그를 활용한 다양한 서체 개발과 디자인의 차원을 넘어 한글에 대한 폭넓은 디자인 의식과 활동을 조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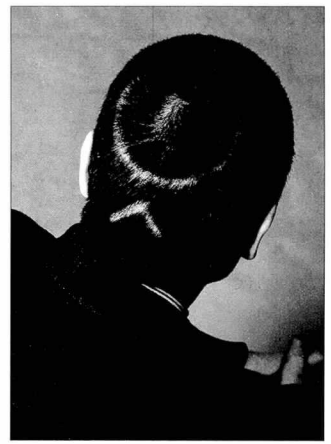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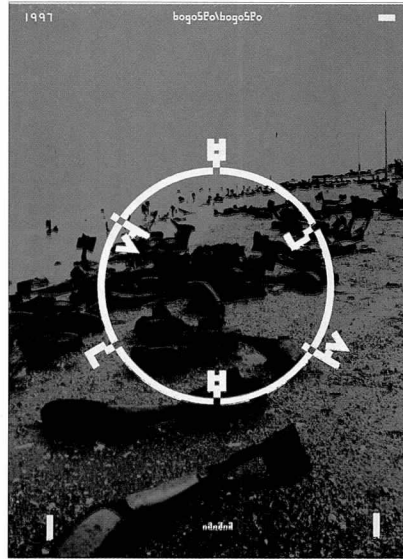
■ 훌륭한 편집 대상 한글

안상수 교수는 스스로가 밝혔듯이 ‘한글을 부리는 사람’이다. 그가 말하는 ‘부리다’라는 표현은 바로 타이포그래피를 의미한다. 글자를 ‘부리는 것’은 글자에 의미 전달 기

능은 물론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적용시켜 글자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일이며 나아가 글자에 감성과 정서까지 담아내는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1980년대 초반까지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단조롭고 경직된 네모틀 속에 한글을 고정시키는 작업이었다.

당시 월간 「마당」의 편집디자이너이던 안상수 교수는 이러한 한계를 절감하고 스스로 서체 개발에 뛰어들어 ‘마당체’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1985년 ‘안상수체’를 발표하게 된다.

안상수체를 비롯하여 이후 서체들은 모두 탈네모틀 서체로 실험적이고 파격적인데 이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제작원리를 충실히 이해하고 활용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기존의



네모틀 서체는 한글의 모아쓰기 원리에 한자의 네모틀 쓰기 방식을 적용, 가상의 네모틀 안에 모든 획을 맞춰 쓴 것이어서 전체적인 통일감은 있지만 자모의 모양이 위치에 따라 심하게 변형되거나 왜곡된다. 반면, 안상수체는 자모음 낱소리들을 정해진 자리에 위치시켜 모아쓰면서도 서체 고유의 형태를 살려주었다. 이렇게 파격적인 새로운 서체를 통해 안교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바로 자유로운 글자의 운용이었다. '새로운 표현'을 선언하며 혁신적인 편집디자인을 실험한 간행물 <보고서/보고서>에서 글자들은 의미의 굴레를 벗어나 자모글자 하나 하나가 조형성을 획득하며 회화적으로 자유롭게 운용된다. 단조롭던 우리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자극하였고, 다양한 한글 서체 개발의 물꼬를 튼 것이다.


■ 생활속의 한글

디자인의 근본을 한글에 두고 있는 안상수교수에게 한글 타이포그래피는 일이며, 공부이며, 동시에 유희이다.

그는 자신이 한글로 디자인한 대문과 울타리 안에 살며, 넥타이와 셔츠의 한글 무늬를 도안하고, 주변의 사물을 탁본하여 그 속에 숨은 한글을 찾아내는 등, 인쇄물에서 탈피하여 생활 속의 한글, 환경 속의 타이포그래피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주변 친구들,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시인 이상의 얼굴을 각자의 한글 이름으로 그리는 글자 초상으로 글자의 회화성을 극대화하거나, 자신의 뒷머리에 이름 첫 글자 'ㅇㅅㅅ'을 새겨 넣는 등 한글과 관련된 흥미진진한 작업과

행적들을 통해 한글에 대한 그의 샘솟는 애정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 그의 상상력은 한글의 상형성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한다. 이는 앞서 말한 한글 조형성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글자를 의미로부터 해방시켜 기능을 배제하고 더 나아가 그것이 새로운 형태로 읽혀질 '전환'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 갤러리의 벽면을 이용한 타이포그래피 작업인 <a, 그리고 ㅎ까지>는 바로 한글의 상형성을 구현한 작업이다. 한글의 마지막 자음인 'ㅎ'이 연장되고 방향을 틀어 생성된 형태는 우연히도 알파벳의 첫 글자인 'a'이다. 이렇게 해서 글자는 정보 교환의 수단만이 아닌 '상상'의 소통수단으로 전환된다.

안상수 교수는 어느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실험적인 만큼 보수적'이다. 그는 또한 매우 유연하면서도 때로는 무척 고집스러워, 모든 지식과 정보를 거리낌없이 흡수하고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방향에는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각종 첨단 매체에 익숙한 디지털 매니아이면서도 작은 구식 수첩에 붓펜을 놀려 일견 서예 같은 글씨를 날리는 아날로그적 감상도 함께 보여준다. 한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한글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하며 실험해 보는 그의 '예술가'적 상상과 열정이 디자인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지속적인 생산성 또는 생식 능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이용우기자>